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기간을 늘이자

김동욱 | 경북 사곡고등학교 교사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는 사교육비 증가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 내신성과 수능성적에 의한 대학진학에서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점수에 의한 한 줄 세우기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신설하였다. 공인어학성적, 경시대회 등 특정과목에 우수한 학생,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신성과 수능성적에 의한 입학전형과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것이라 기대와 시대에 맞추어 신설한 글로벌전형(공인어학성적), 특기자전형(수학 및 과학과목 우수성 입증),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들은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아 서류 검토 전문인력 부족과 짧은 전형 일정으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 검토 없이 지원자격과 정량적 전형요소인 공인어학 점수, 대외경시대회 수상실적을 요구하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전형이란 점을 내세워 3년 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을 강력하게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총 모집인원 대비 작년 57.9%에서 60.9%로 늘었으며 입학사정관전형은 작년 97개 대학에서 올해 118개

대학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6.5%에서 9.9%인 37,628명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선도대학(29개 대학) 및 우수 대학(21개 대학)을 선정하여 작년 236억원, 올해 35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입사정관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사정관들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의심 받고 있으며 대학들이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전형 대학 지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울리지 않는 전형들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면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특기자전형과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 등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시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 늘어난 입학사정관전형 및 부분 참여 전형의 지원자들로 서류평가를 위한 할당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올해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한 명당 심사 수험생 수가 연세대 771명, 서울대 624명, 고려대 478명, 이화여대 370명, 부산대 1,323명 등이었다. 충북대 623명, 충주대 340명,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393명, 한국교원대는 1153명, 건양대 110명, 공주대 300명, 충남대 429명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200~400명이나 되었다. 지원자 대비 입학사정관의 절대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수 위촉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지만 이들은 자체 또는 외부 연수시간 절대 부족으로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입학사정관 중 상당수가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평가에 대한 경험 부족과 할당된 인원내 대한 서류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수시 지원자 1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0분도 내기 힘들 것이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입학사정관들이 원서 마감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여 입학사정관별로 할당할 기간을 빼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꼬박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며 수백 명이 낸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며 여만에 성의껏 다 보는 것은 무리다. 입학사정관전형의 본래 취지상 교과성적 등 계량화된 자료로 학생을 선발하면 안 되지만 서류심사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원자 1명이 제출한 서류의 양을 제한했지만 현재 사정관 수로는 학생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대학 관계자는 입시철을 맞아 대학별로 20~40명 가량의 교수 등을 위촉사정관으로 따로 선임했지만 전문성 부족이 걱정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내신성적 등 학업적 요소로 일정 배수를 1단계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고려대는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10월 8일로 한 달도 안 된다. 건국대(10월 7일) 성균관대(11일) 한양대(13일) 경희대(18일) 이화여대(19일) 등 대부분 대학이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검토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해 수백 여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기에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서

류 제출 시기를 앞당겨 평가 기간을 늘려야 하지만 고교교육 파행 때문에 전형기간을 자체적으로 늘리지 못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전형은 시간에 쫓긴 입학사정관들이 내신성적 등 정량적 평가 요소의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특색 없고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만들어진 학생부 비교과영역에 대한 서류 평가로 지원자의 차이를 판정해 내기 어렵다. 입학사정관전형 아래서도 내신 성적 등 정량적 요소에 의한 평가가 선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 수가 대폭 늘어나 각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대학마다 무한정 입학사정관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임 입학사정관 외에 대학마다 교수 등 위촉사정관을 선임해 함께 전형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입학사정관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하지만 전문성 연수 자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또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양해 어떤 전형의 경우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서류를 1단계에서부터 전부 검토하지 않으며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배수를 걸러낸 후 나머지에 한해 사정관이 심층 검토를 하는 단계형 방식을 활용하라는 것은 내신성적 등 정량적 평가 후 종합적 서류평가는 이미 정량적 평가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므로 서류평가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해 질 수 있다. 사례 발표의 학생들 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의성이나 잠재력을 파악하기보단 특기자전형, 대학독자적기준특별전형, 글로벌전형처럼 입학사정관 부분 참여전형들은 비교과영역

종합적 평가보다는 비교과영역 스펙에 따른 서류심사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전형 외 입학사정관 부분 참여 전형의 서류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우려할 수준이다. 입학사정관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서류 검토 기간을 늘려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는 전형요소인 자기소개서, 추천서, 첨부서류 등 다양한 서류 준비와 대학이 밝히지 않는 평가 기준을 위해 복잡한 정보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은 충분한 서류 검토 인원과 서류 검토 시간의 확보가 필수다. 서류 검토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인원이지만 서류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은 내신성적, 수능의 제한된 전형 요소에 의한 한 줄 세우기와 이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고 두 전형요소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전형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비 경감은 아직도 요원하다. 대학입학 전형기간의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으로도 많은 불만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기간의 개편으로 대학의 각 전형별로 입학사정관 수 부족, 서류평가 시간 부족, 서류 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서류준비 시간 확보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각각의 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평가기준 제공, 전형료 수입을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한다면 서류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시모집 전형 일정에서 서류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입학 전형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변경안을 여기에 제시한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수시모집 전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과 정시모집 전형기간을 줄여 겨울방학인 다음 해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수시2학기 전형기간은 9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 중순의 최종등록까지 3개월 가량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7월 초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시작하여 5개월 가량 된다. 그러므로 수시모집 전형기간을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전형기간을 2개월 정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특정 전형을 위해 전형기간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형의 특성상 탄력적으로 전형기간을 적용하여 여름방학을 수시모집 전형기간에 포함시키고 정시모집 기간을 겨울방학인 1월에 실시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도 막을 수 있고,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전형 및 입학사정관 부분 참여 전형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야 한다. 사실 작년과 올해 정시모집에서 논술 실시대학은 7개 대학이며 면접·구술고사는 작년에 103개교에서 올해 105개교로 2개교만 늘었다. 정시모집은 수시모집과 달리 모집군별 한 곳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처럼 학생이 하루에 두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중복지원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지역별 입학처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원만히 전형일지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형유형의 도입과 전형 일정 등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한 사항들은 대학(대학교협), 교과부, 고등학교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방적인 시행에 따른 서로 간의 책임 떠넘기거나 후속 세부 대책 부실에서 오는 불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표1)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일정 변경안

| 분류 | 기 준 안 | 개 편 안 | 비 고 |
|--------------------|-----------------------|-----------------------------------|---------------------|
| 수시모집 요강발표 | 8월 말까지 | 2010.6.30 | 지정 |
| 수시원서 접수기간 | 2010.9.8~ | 2010.8.23~ | |
| 수시서류 접수기간 | 2010.9.8~ | 2010.8.23~ | |
| 수시서류 추가접수기간 | 대학요청시(서류평가 기간 내) | 2010.9.1~9.6 ※대학요청시(서류평가 기간 내) | |
| 수시모집 전형기간 | 2010.9.8~12.7(91일간) | 2010.8.8~12.24(12일간) | |
| 2회 평가원 시험일 | 2010.9.2 | 2010.9.2 | |
| 수능시험 | 2010.11.11 | 2010.11.11 | |
| 수능통지표 발송일 | 2010.12.9 | 2010.12.9 | |
| 정시모집 요강발표 | 11월 말 | 2010.11.30 | 지정 |
| 수시등록일 | 2010.12.13~12.15(3일간) | 2010.12.15~12.17(3일간) | |
| 수시미등록 충원기간 | | 2010.12.18~12.28(9일간) | |
| 정시원서 접수기간 | 2010.12.17~12.23(7일간) | 2010.1.3~1.7(6일간) | |
| 정시모집 군별 전형기간 | 가군 | 2010.12.27~2011.1.10(15일간) | 2011.1.8~1.16(9일간) |
| | 나군 | 2011.1.11~1.20(10일간) | 2011.1.16~1.22(7일간) |
| | 다군 | 2011.1.21~2.1(12일간) | 2011.1.23~1.31(9일간) |
| 정시합격자 발표 | 2010.2.1까지 | 2010.2.1까지 | |
| 정시등록기간 | 2010.2.7~2.9(3일간) | 2010.2.7~2.9(3일간) | |
| 정시미등록 충원기간 | 2011.2.22까지 | 2011.2.22까지 | |
| 정시추가 모집기간 | 2011.2.23~2.28 | 2011.2.23~2.28 | |
| 학생부 마감일 | 수시모집 | 2010.8.31 | 2010.8.31 기준 |
| | 정시모집 | 2010.12.3 | 2010.12.3 기준 |

필·자·소·개

김동욱

경북구미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입시 사이트 '까치Q' 운영자로 활동하였으며, 이화여대 정책연구과 제 <대학입학전형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평가지표 개선 방안>(2009)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경북대입상담 교사단, 대학입시 카페 '내입전략'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